

미 증시, 경제지표 소화 속 연휴 앞두고 상승 마감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달러 ↑, 금리 ↑

•미 증시는 부진한 내구재 주문과 견고한 노동시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을 소화하며 등락을 거듭했지만 상승 마감. 이에 나스닥은 11월에 11%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다우지수 6.7%, S&P 500 지수는 8.7%나 상승. 장 시작 전,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5주만에 최저치 기록하였지만, 10월 내구재주문이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며 경기 불확실성을 키워. 미 10년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며 지난 9월 22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견고한 노동시장과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상승하며 증시 상승폭을 축소하는 데 영향을 줬. 한편, 국제유가는 OPEC+ 회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에 4% 넘게 하락하였으나, 합의 도달 가능성이 언급되며 낙폭 대부분 축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바이낸스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승. (다우 +0.53%, 나스닥 +0.46%, S&P500 +0.41%, 러셀2000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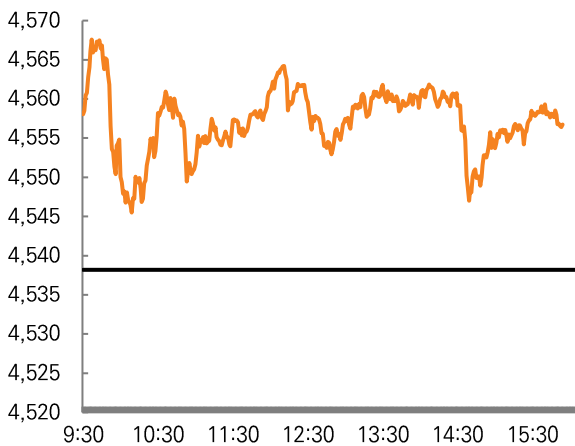
특징 종목: 엔비디아, 테슬라 ↓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에너지(-0.11%)를 제외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0.88%), 필수소비재(+0.71%), 헬스케어(+0.54%) 등 10개 업종이 상승.
 •(상승) 아마존(+1.95%), 메타플랫폼스(+1.34%), 마이크로소프트(+1.28%)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속에 HP(+1.02%)는 혼합된 실적 결과에 소폭 상승.
 •(하락) 엔비디아(-2.46%)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중국관련 불확실성으로 약세. 테슬라(-2.90%)는 모델Y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과 2019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에 약세.

한국 증시 전망: 소강

•MSCI 한국 지수 ETF는 0.05%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2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0.08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6% 하락. KOSPI는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국내증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와 달러강세, 美 국채수익률 상승의 영향으로 외국인 매수 압력은 약해지면서 외국인 수급의 소강(또는 공백) 상태가 예상. 이 경우, 개별기업의 이슈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움직임 나타날 것으로 예상. 또한 코스피는 2,515 포인트에 위치한 기술적 저항 돌파를 위한 시도와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 찾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511.70	+0.05	상해종합	3,043.61	-0.79
KOSDAQ	814.61	-0.29	홍콩항셱	17,734.60	+0.00
DOW	35,273.03	+0.53	인도센섹스	66,023.24	+0.14
NASDAQ	14,265.86	+0.46	유로스톡스 50	4,352.02	+0.46
S&P 500	4,556.62	+0.41	영국	7,469.51	-0.17
캐나다	20,113.96	+0.02	독일	15,957.82	+0.36
일본	33,451.83	+0.29	프랑스	7,260.73	+0.4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경제지표

미 증시는 부진한 내구재 주문과 견고한 노동시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을 소화하며 등락을 거듭했지만 상승 마감. 이에 나스닥은 11월에 11%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다우지수 6.7%, S&P 500 지수는 8.7%나 상승. 장 시작 전,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5주만에 최저치 기록하였지만, 10월 내구재주문이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며 경기 불확실성을 키워. 미 10년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며 지난 9월 22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견고한 노동시장과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상승하며 증시 상승폭을 축소하는 데 영향을 줬. 한편, 국제유가는 OPEC+ 회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에 4% 넘게 하락하였으나, 합의 도달 가능성이 언급되며 낙폭 대부분 축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바이낸스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승.

Eco리뷰: 주간 실업수당, 내구재 주문, 소비자심리, 기대인플레이션

① 주 후반, 추수감사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경제지표를 미리 발표. 우선 18일 주간으로 끝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계절조정)는 전주대비 24,000건 감소한 209,000건으로 발표. 이는 시장 예상치인 227,000건과 이전 수정치인 233,000건을 크게 하회하며 5주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한편, 연속 청구건수 역시 전주대비 22,000건 감소한 184만건을 기록하며 두 달 만에 첫 감소 기록.

②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동시에 발표된 10월 내구재주문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 영향으로 자동차 주문과 출하가 모두 감소하며 전월대비 5.4%나 감소. 이는 지난 달 수정치 4.0%와 시장이 예상했던 3.2% 감소를 크게 하회. 규모가 큰 운송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 역시 전월대비 보험세를 보이며 0.1% 증가할 것이란 시장 예상과 지난 달 수정치 0.2%를 하회.

③ 장 시작 이후 공개된 1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61.3으로 잠정치 60.4에서 소폭 개선됐지만 지난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 개인 재정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와 사업 여건의 눈에 띄는 악화가 상쇄되면서 4개월 연속 둔화. 현재 경제 상황을 측정하는 지수는 잠정치 65.7에서 68.3으로 상향조정 됐으나 10월 70.6보다는 낮아. 소비자 기대지수는 56.8로 잠정치 56.9 보다 약간 낮아졌으며 전월 59.3을 크게 하회.

④ 한편,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의 경우 7개월 만에 최고치인 4.5%로 상승. 이는 예비 추정치 4.4% 및 전월 4.2%보다 높은 수치. 1년 후 휘발유 가격 전망은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에 이르렀고, 5년 후 휘발유 가격 전망은 2022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동시에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 전망은 3.2%를 유지했지만, 2011년 이후 최고.

금일 미 국채 수익률 곡선 전반적으로 전일대비 소폭 상승. 이에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 차는 '약세 플래트닝(bear flattening)'을 보이며 전일대비 역전폭 소폭 확대. 상기 발표된 경제지표 중 ①, ④는 수익률 상승 압력을 ②, ③은 수익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 장 초반에는 하락 압력이 컸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압력을 더 크게 반영하며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를 키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테슬라, 엔비디아 약세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에너지(-0.11%)를 제외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0.88%), 필수소비재(+0.71%), 헬스케어(+0.54%) 등 10개 업종이 상승. 특히, 에너지 업종은 구제 유가 하락에 따라 장중 2% 넘게 하락했으나 낙폭을 축소.

(상승) 아마존(+1.95%), 메타플랫폼스(+1.34%), 마이크로소프트(+1.28%)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속에 HP(+1.02%)는 혼합된 실적 결과에 소폭 상승하였고, 보잉(+0.75%)은 737 MAX에 대한 비행테스트 면제 소식에 상승. 크로락스(+0.83%)는 JP모건이 투자의견을 상향하며 상승. 국제유가 하락 속에 카니발(+1.90%), 유니타이드항공(+0.91%) 등 여행관련주 강세.

(하락) 엔비디아(-2.46%)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드언스에도 불구하고 중국관련 불확실성으로 약세. 테슬라(-2.90%)는 모델Y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과 2019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에 약세. 게스(-12.27%), 오토데스크(-6.90%), 노드스트롬(-4.63%), 디어(-3.11%) 등은 시장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가이드언스 하향에 약세. 어반 아웃피터스(-12.37%)는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수요둔화 언급에 약세. 버진갤럭틱(-6.57%)은 모건스탠리가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하향하자 약세 기록.

상품 및
FX시장 동향

흔들린 유가

(유가) 국제유가는 오는 26일 예정된 OPEC+ 감시위원회 회의가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거의 5%에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 최종적으로는 26일 예정된 회의가 30일에 개최될 예정. 그러나 이 과정에서 OPEC+ 산유국 간의 생산량 감축과 관련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특히, 하루 1백만 배럴 규모의 감산을 지속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산유국들의 생산량 수준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여. 사우디는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였던 감산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는 걸 고려하고 있지만 앙골라, 콩고,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산유국과 UAE는 최근 산유량을 늘리고 있는 모습. CME그룹의 OPEC+ 위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큰 변화 없을 것이란 전망이 77%에 달해. 그러나 유가의 추가 하락은 감산 필요성을 키울 가능성 높아

(금리) 부진한 경제지표의 영향으로 장 초반 지난 9월 22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견고한 노동시장 데이터와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하며 4.42% 기록.

한국
주식시장 전망

소강

MSCI 한국 지수 ETF는 0.05%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2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0.08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6% 하락. KOSPI는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국내증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와 달러강세, 美 국채수익률 상승의 영향으로 외국인 매수 압력은 약해지면서 외국인 수급의 소강(또는 공백) 상태가 예상. 이 경우, 개별기업의 이슈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움직임 나타날 것으로 예상. 최근 국내증시에서는 로봇, 2차전지 등 특정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되는 모습. 또한 코스피는 2,515 포인트에 위치한 기술적 저항 돌파를 위한 시도와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 찾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05	대형 가치주 ETF (IVE)	+0.61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42
소매업체 ETF (XLY)	+0.30	소형 가치주 ETF (IWN)	+0.63
온라인소매 ETF (EBIZ)	+1.00	대형 성장주 ETF (VUG)	+0.47
미국 인프라 ETF (PAVE)	+0.32	중형 성장주 ETF (IWP)	+0.50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0.7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0.37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37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09	미국 국채 ETF (IEF)	-0.03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29	하이일드 ETF (JNK)	+0.25
바이오섹터 ETF (IBB)	+0.64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0.04	물가연동채 ETF (TIP)	+0.10
반도체 ETF (SMH)	-0.2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4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커뮤니케이션	241.83	+0.88	+2.41	+6.41
필수소비재	740.11	+0.71	-0.33	+4.12
헬스케어	1,517.49	+0.54	+1.87	+1.71
경기소비재	1,332.36	+0.50	+0.45	+11.36
부동산	226.57	+0.37	+0.52	+10.35
유틸리티	315.54	+0.34	+0.89	+7.10
IT	3,278.09	+0.28	+1.33	+12.96
금융	584.23	+0.21	+1.38	+9.03
산업재	895.22	+0.19	+0.99	+7.19
소재	508.09	+0.12	+1.09	+7.20
에너지	642.21	-0.11	-0.23	-7.07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7.10	-1.32	-0.07	Dollar Index	103.917	-0.41	-1.84
브렌트유	81.96	-1.02	+0.53	EUR/USD	1.0915	+0.58	+2.14
천연가스	2.90	+2.14	-8.87	USD/JPY	149.63	-0.73	-1.25
금	2,013.20	-0.47	+1.41	GBP/USD	1.2462	+0.39	+1.92
은	24.03	-0.75	+0.68	USD/CHF	0.8857	-0.34	-1.88
알루미늄	2,218.50	-1.77	-0.63	AUD/USD	0.6515	+0.70	+2.42
전기동	8,353.50	-1.13	+1.06	USD/CAD	1.3723	-0.23	-0.57
아연	2,495.00	-2.00	-6.06	USD/RUB	89.5080	+0.27	-3.06
옥수수	487.75	-0.31	-0.20	USD/BRL	4.9098	+0.85	-0.60
밀	584.50	+0.60	-0.30	USD/CNH	7.2173	-0.43	-1.22
대두	1,356.50	-1.36	-1.91	USD/KRW	1,296.75	-0.01	-1.53
커피	169.05	+0.30	-3.48	USD/KRW NDF1M	1,293.43	+0.21	-1.7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406	+1.35	-12.53	스페인	3.553	-0.70	-11.80
한국	3.760	+5.00	-5.70	포르투갈	3.221	+0.80	-10.70
일본	0.725	+2.20	-7.70	그리스	3.782	+1.40	-10.60
독일	2.560	-0.60	-8.40	이탈리아	4.316	-0.10	-12.6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